

# 운조루-곡전재

## ■ 코스 지도

구례 최고의 명당터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다



## ■ 관광자원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오미마을	구례 최고의 명당 오미마을	문화재
2	운조루_1	운조루의 개요	문화재
3	운조루_2	운조루의 연못과 솟을 대문	문화재
4	운조루_3	운조루는 본래 큰 사랑채를 일컫는 말	문화재
5	운조루_4	타인능해	문화재
6	곡전재_1	곡전재 개요와 담장	문화재
7	곡전재_2	곡전재의 정원	문화재

## 1. 오미마을

지금 우리가 서있는 곳은 구례의 오미마을입니다.

구례에서 가장 알아주는 명당자리에 위치한 마을이지요.

지리산 노고단 형제봉이 줄기를 뺏어 나와 섬진강에 이르며 만든 너른 옥토에 자리한 곳,  
그곳이 바로 오미마을입니다.

게다가 이곳 오미마을에는 풍수가들이 꼽는 보석같은 땅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선녀가 금가락지를 떨어뜨린 금환락지, 금거북이가 진흙 속에 묻혀있다는 금귀몰니, 금, 은, 진주, 산호, 호박, 귀한 보물이 다섯 가지나 쌓여 있다는 오보교취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 땅을 찾아 집을 지으면 천운을 받아 힘 안들이고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하여, 조선시대 때부터 전국 각지의 지체높은 양반들이 앞다투어 물려들었던 탓에 한 때 오미마을은 백호가 넘는 집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이 금환락지의 핵심에는 아흔아홉 칸짜리 집이 있는데, 이곳이 운조루이고, 이 운조루와 머지않은 곳에 곡전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례의 명당, 오미 마을중에서도 최고의 명당지로 손꼽히는 운조루와 곡전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2. 운조루 \_1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금환락지의 명당 한가운데 운조루가 들어서 있습니다.

운조루는 낙안현감을 지낸 유이주가 무려 7년 동안의 대공사를 거쳐 1776년에 완성한 집인데요, 유이주는 운조루 터를 닦으면서 “하늘이 이 땅을 아껴 두었다가 비밀스럽게 나를 기다린 것”이라고 아주 기뻐했다고 하네요.

뒤에는 지리산자락이 앞에는 섬진강이 흐르니 그야말로 배산임수, 명당 중의 명당을 차지했으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실 집의 이름인 ‘운조루’는 본래 큰 사랑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중국의 도연명이 지은 <귀거래사> 중에서 착안해 집의 이름, 즉 택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팡이 짚고 다니다 아무데서나 쉬면서 때때로 고개 들어 먼 곳을 바라보니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에 피어오르고 새들은 날기에 지쳐 동우리로 돌아오네“*

여기에 나오는 구름과 새를 따다가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사는 집”이란 뜻의 운조루를 선택한 것이죠.

운조루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명당자리에 집을 지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 건물이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충실하게 따른 역사적인 유물로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공 당시 아흔아홉 칸이었던 운조루는 25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는 쓰러지고 일부는 낡아 오늘날에는 60여 칸만이 남아 있습니다.

### 3. 운조루\_2

이 마을의 첫 인상은 귀한 손님이 오는 날처럼 참 정갈하게 정돈돼 있다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아니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갈함이 묻어나니 명당을 지키는 정성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가장 명당자리라는 운조루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조루 대문 앞에 다다르면 연못이 눈에 띕니다. 네모난 연못가운데에 둥근 섬이 솟아있는 것도 보이시죠? 연못 속의 이 섬은 삼신산을 뜻한다고 합니다. 삼신산이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뜻합니다. 삼신산과 연못 바깥과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드나들 수도 있게 해놓았는데, 이 연못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맞은편에 있는 계족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원래 이 연못은 아주 컸지만 세월이 흐르며 일부만 남겨져 지금의 크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 사람들은 그저 상상만 해볼 뿐이지요. 연꽃이 화려하게 피고, 나무에 꽃이 필 때면 정말 시선을 땔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사랑하는 동시에 풍수지리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못입니다.

연못에서 시선을 거두고 운조루로 들어서다보면 이 집의 규모를 알려주는 솟을 대문이 보이실 겁니다. 양반들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행랑채의 대문보다 높게 지은 대문인 솟을 대문. 그런데 이 곳 솟을 대문에는 웬 뼈가 걸려있네요? 문화관광해설사님께 운조루의 솟을대문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에는 사람이 출입하는 용도 외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저기 문 위에 호랑이 뼈를 달아놓았던 것은 악귀를 물리치고 집안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기도 하지만, 저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운조루를 지은 유익주가 무관으로서 용맹스럽게 호랑이를 때려 잡고, 그 가죽을 벗겨 영조임금에게 바친 가문의 영광스러움을 자꾸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요. 그런데 지금은 호랑이 뼈가 사라져서 대신에 말뼈를 걸어 두게 되었다고 해요. 예전엔 아들을 낳는데 호랑이뼈가 아주 영험했다고 합니다. 아들 못 낳아 고통받는 마을의 여인네들이 호랑이 뼈가 아들낳는데 영험하다니까 자꾸 와서 몰래 문지르고 떼어도 가고 했다고 해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아들 딸을 많이 차별하지 않게 되었지만 몇 십년전까지만 해도 극심했던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여인들이 당했던 아픔을 호랑이 뼈 대신 걸려있는 저 뼈가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죠.*

*또 문의 규모나 생김새는 신분을 상징해 주기도 하는데요, 성이나 궁궐의 몇 겹의 웅장한 문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민가의 대문 중에서 가장 격식을 갖춘 것이 『솟을대문』이예요. 길게 이어진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솟은 지붕을 이고 있는 대문이에요. 그래서 지붕이 높이 솟았다 해서 솟을대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사실 벼슬을 하는 양반이 초헌을 타고 문을 출입할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높여 놓은 것에서 생겨난 구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반가의 상징처럼 되어 버리게 돼요. 초헌은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들이 탔던 바퀴 하나 달린 수레라고 해요. 처음에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높여 만들지만, 시간이 가면서 높은 벼슬자리에 오른*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게 되요. 조선 후기 일반인들도 따라 하면서 확산이 되게 되지요.*

모든 고택의 문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조루의 솜을 대문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있었네요

#### 4. 운조루\_3

솥을 대문을 들어서면 이 집의 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배치도가 눈에 띕니다. 이 배치도에는 집안 건물의 위치뿐만 아니라 집을 바라보고 섰을 때, 섬진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방문객에 대한 섬세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복사본입니다.

배치도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사랑채가 보이고 양 옆으로 행랑채를 지나게 되실 겁니다.

행랑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동행랑과 서행랑으로 나뉘는데, 이곳에는 주로 운조루의 노복들이 살았다고 하지요.

손님을 맞을 때, 주인양반이 드나들 때 바깥에 누군가 돌아다닐 때, 노복들은 어김없이 뛰어 나와야 했었습니다. 노복들은 과연 편히 누워보거나 했을까 싶네요.

대대로 고단하게 살았을 노복들의 삶을 생각하면 커다란 한옥이 그리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곧바로 마주 선 사랑채의 고풍적인 자태에 맘을 빼앗겨 버릴 테니까요. 시 한 수 절로 나올 것 같은 차분한 분위기의 사랑채는 큰 사랑채와 중간 사랑채로 나뉘는데, 왼쪽에 보이는 좀 더 높은 기단에 자리한 건물이 큰 사랑채이고, 오른쪽의 약간 낮은 건물이 '중간 사랑채'이죠.

여기서 우리는 큰 사랑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진짜 운조루이기 때문이지요. 운조루라는 택호는 원래 큰 사랑채에서도 두 칸의 누마루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름의 뜻이 워낙 좋아 집 전체를 아우르는 '택호'로 정해 부르게 했지요.

그리고 보니 운조루의 진정한 매력은 진짜 운조루라고 할 수 있는 대청에서 누마루까지 이어진 마루 공간일 것입니다. 손때 묻은 우물마루와 자연을 닮은 기둥의 옛 빛깔, 그리고 장식 없는 창호문의 어울림까지...

현대 그 어떤 훌륭한 건축가도 만들어내지 못할 예술이지요.

그래서 이곳이 선조들의 지혜와 미적 감각이 빚어낸 최고의 고택 중 하나라고 손꼽히는 것이겠죠.

## 5. 운조루\_4

운조루의 안채는 부엌과 곳간 등이 있어서 그런지 사랑채보다는 조금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안채에서는 주로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거했다고 하니, 안채 곳곳에서 여자들의 수다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전해질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안채에는 다른 고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방에 다락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층의 공간을 활용했다는 건데, 이것은 경상북도 가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하네요.

특히 오른쪽의 안채를 보면 테라스처럼 나와 있는 '작은 마루'가 이층에 있는 것도 이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랑채를 통해 부엌으로 들어가면 네모난 뒤주와 함께 그보다 조금 작은 둥근 나무통을 볼 수 있습니다. 둥근 나무통의 아래 부분의 네모난 마개를 보니 '타인능해'라고 써 있군요.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오는 걸까요?

머슴 *그나저나 대감님 지금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긴 합니다만요,  
뒤주는 왜 또 만들라 하시는지요?*

대감 *거참 녀석 궁금한 것도 많네. 우리 집에서 쓰려고 그런다 녀석아.*

머슴 *잉? 지난번에 참나무로 제가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튼튼하게 쥐새끼 한 마리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대감 *철복이 네 녀석이 나무를 잘 짜는 건 내 잘 알지. 그래서 이렇게 네게 또  
시키는 게 아니냐.*

머슴 *헤헤헤... 자, 대감님, 다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감 *잘 만들었구나. 그럼 거기에 이렇게 새기도록 하여라. '타.인.능.해'  
이 뒤주 속의 쌀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고 적어라.*

머슴 *네에? 그럼 이거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공용 뒤주라는 말씀이신가요?*

대감 *그렇지. 철복이는 어서 이 뒤주에 쌀을 담아두고 마을 배고픈 이들에게 가져가라고  
일러라.*

머슴 *아이고~ 대감님 정말이십니까? !!! 감사합니다.*

타인능해란 '누구나 쉽게 열 수 있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명당터의 집주인은 뒤주가 비워지지 않도록 늘 쌀을 그득하게 넣어놓았고, 배고픈 이들은 구걸하는 수고로움이 없이 쌀을 가져다 먹었다고 하니, 나누고 베푸는 이 양반 정신이 오늘날 새삼 그리워집니다.

사실 운조루의 주인은 천석꾼에도 못 미치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격동의 현대사를 건너오는 동안에도 운조루가 별 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은 주인양반의 이런 넉넉한 인심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 6. 곡전재\_1

이제 가 볼 곳은 전통가옥 곡전재입니다.

운조루와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옥인데, 이 집에서 눈여겨 볼 것은 담장입니다. 커다란 호박돌로 담장을 둥그렇게 쌓아올려 금한락지의 명당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둥근 반지로 건물을 둘러친 것처럼 지어졌지요.

야트막한 한옥의 담장들만 보다가 성곽처럼 높고 웅장한 담장을 보니 많이 낯선 기분도 드실 텐데요,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히려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곡전재는 운조루처럼 그리 오래된 집은 아닙니다.

문화관광해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곡전재는 본래 1929년 승주 사람 박승림이 건축하였으며,  
1940년 곡전 이교신이 인수하여 현재 그의 자손이 5대째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곡전재라는 가옥의 명칭도 새 주인의 호에서 따오게 된거죠.  
곡전재는 일자형 집인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가 모여 ‘口’자 모양을 띠는데,  
전체적으로 50칸이 넘는 꽤 규모 있는 집이지만, 아기자기한 구조 때문에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50칸이 넘지만 아늑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미음’자로 된 집의 구조 덕분이지요.

명당자리를 돌아보며 드는 생각 중 하나는 “하루라도 묵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일 텐데요, 이곳에서는 가능합니다.

곡전재는 안채만 빼놓고 한옥민박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니 여행을 다니는 이들은 이곳에서 잠시 여정을 풀어도 좋지 않을까요?

명당터에서의 하룻밤, 그것만으로도 아주 색다른 체험이 될 겁니다.



## 7. 곡전재\_2

곡전재에는 유명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다란 호박돌로 두른 담장이고, 또 하나는 정원이죠.

이 담장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문화관광해설사님의 소개로 들어보겠습니다.

“곡전재는 전형적인 여느 가옥하고는 참 달라요. 동그란 돌담을 빙 둘러서 막은 것이, 배산임수의 명당자리에 살짝 살짝 보일 듯 말 듯 담을 아트막히 둘러싼 일반 양반 가옥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폐쇄적으로 보이는 그 담이 “천상의 옥녀가 옥가락지를 떨어뜨린 터가 바로 여기니 여기가 바로 명당이다”라고 선포한 표시라고 해야할까요? 바로 그런 의도에서 집을 이런 독특한 모양으로 지은 거죠. 그런데 그 높은 담이 6.25 전쟁 기간에는 독특한 역할을 했으니, 그 이름값을 하기는 했던 것 같네요. 6.26 당시 이곳은 밤낮으로 정권이 바뀌는 고난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국군이 지배를 하고, 밤에는 지리산에 숨어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내려와 장악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어둠이 내리면 약탈의 대상이 되던 소를 몰고 담이 높은 곡전재에 집결해 피해있다가 아침이 되면 소를 몰고 농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오미리 한옥 마을 발치에 있는 저수지 위쪽 언덕에 육군 초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산사람인가 싶어 곡전재를 향해서 무차별 난사를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담장에는 총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지리산은 광대하고 골이 깊고 옛날부터 난리 시에 숨기 좋은 곳이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점 때문에 한말 의병운동, 여순사건과 6.25 전쟁 시에 최후의 저항지로 이용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매체에서 아름다운 곡전재의 정원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이 정원에서 인상적인 것은 세연지라는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입니다.

그 물이 그대로 마당 정원으로 흘러가죠. 구불구불 이어진 이 정원의 물길을 보고 있으면,

마치 섬진강의 물길의 축소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흘러갑니다.

안채를 돌아 뒤란으로 돌아가니,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자연스럽게 조성된 시원한 대숲에 눈이 호강을 하게 되네요.

이곳의 대숲에는 구불구불한 정원의 물길을 닮은 산책로가 있는데요, 천천히 걷다보니 선비가 된 듯 여유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지요.

대나무 숲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 서걱서걱 잎이 춤을 추고, 숲 사이로 떨어지는 빛의 그림자와 어울려 대숲이 더욱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운조루와 곡전재를 만날 수 있는 구례의 명당 오미마을.

어려운 풍수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마을이 주는 푸근함에 누구나 살기 좋은 곳이라느걸 느끼게 해주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